

##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장 유 경<sup>†</sup>      임 현 정      곽 금 주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을 품사별로 분류하여 어머니 말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13개월부터 36개월 영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글 없는 그림 책읽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을 모두 녹음하여 품사별로 분류하였고 영아의 어휘는 체크리스트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은 총 어휘수(token)로 보면 명사가 가장 많았고, 어휘의 종류수(type)로 보았을 때에는 동사가 가장 많았다. 어휘수로 볼 때 영아의 표현어휘수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품사는 대명사로 나타났고 특히 저 월령에서는 명사와 관형사가 영아의 표현어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어휘종류별 품사를 중심으로 보면 역시 대명사가 영아의 표현어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저 월령에서는 명사와 관형사가, 고 월령에서는 대명사가 영아의 표현어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영아의 어휘습득에서 명사 뿐 아니라 관형사, 대명사와 같은 품사가 중요한 변인이 됨을 보여주며 영아의 월령에 따라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품사가 명사, 관형사에서 대명사로 변화하는 것은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와도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초기 어휘습득에서 명사의 영향을 강조하는 제약성 이론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언어적 입력, 대명사, 명사, 동사, 표현어휘수

\* 본 연구는 2002년 학술진흥재단에서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과 심희옥에게 지원한 기초학문 육성과제(과제 번호: KRF-2002-074-HM1006)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방대한 연구의 진행에 수고해주신 이지연, 김수정, 김원경 연구원과 연구팀, 연구에 참여해주신 아기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장유경,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275 LG마포빌딩

E-mail : ykchang@eduhansol.co.kr

영아의 언어발달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어휘획득의 속도이다. 영어를 말하는 영아들의 경우 2세 경이 되면 어휘폭발을 나타내며, 18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평균 50어휘를 학습한다(Bates, Dale, & Thal, 1995; Bloom, 1973, 1993; Bloom, Tinker, & Marguluis, 1993; Dromi, 1987, 1993; Nelson, 1973). 18개월 이후부터는 하루에 평균 5.5개의 주요 어휘들을 학습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평균 10,000개의 어휘를 인식한다(Anglin, 1993). 한국어를 말하는 영아들의 경우에도 22개월 이후에는 표현하는 어휘의 수가 급증하여 10여일 만에 15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장유경, 1997).

이렇게 급속한 어휘습득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어휘습득의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언어습득에 있어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어머니 및 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적 입력의 양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주면 실제로 어휘발달이 촉진됨을 보여주었다(장유경, 이근영, 곽금주와 성현란, 2003; Hart & Risley, 1995; Hoff & Naigles, 2002;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Weizman & Snow, 2001). 예를 들어, 장유경 등(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와 영아의 책읽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말을 많이 해주는 경우 영아의 발화도 많아짐을 보여주었다. 한편 언어적 입력의 질 또한 영아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주어서 영아의 언어적 반응에 대한 피드백과 질문하기는 많을수록, 금지와 제지, 설명하기는 적을수록 어휘발달이 촉진되었다(이지연, 이근영과 장유경, 2004; Bornstein, 2003; Hart & Risley, 1992).

그런데 어머니의 입력 양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중요하다는 일련의 연구들은 입력의 어휘수

만을 분석하여 입력에 있어 어휘수 이외의 특성,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의 품사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가 입력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품사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이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지적 제약성의 입장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영아들의 인지발달을 인도하는 제약성이 존재한다는 제약성 이론(Carey, 1985; Keil, 1981; Spelke, 1990; Wynn, 1992)이 초기 어휘습득에도 적용되었다. 즉, 인지적 제약성이 초기 어휘습득 상황에 존재하는 모호함을 줄여주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장유경, 1997; 1998; Markman, 1989; Markman & Hutchinson, 1984). 한편, 영아에게 제공되는 언어적 입력 중 명사는 동사보다 의미하는 바가 더 구체적이고, 비교적 지각하기 쉽고(Gentner, 1982; Caselli, Casadio, & Bates, 2001), 게다가 어머니들은 영아들과 초기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이름 붙이기를 주로 하므로(예: 이건 ‘토끼야’. 이건 ‘전화기구나.’)(Ninio & Bruner, 1978), 명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제약성 이론을 지지하는 한 증거로 Au, Dapretto와 Song(1994)의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의 언어적 입력 중에서 동사가 문장의 말미에 와서 강조되었고 이렇게 동사가 강조되고 많이 입력되는 경우에도 영아들은 명사를 더 많이 획득하였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어권 어머니들의 경우 명명을 많이 하므로 명사가 많이 입력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동사가 더 강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가지는 제약성이 입력의 품사와 무관하게 영아들로 하여금 명사의 습득을 더 용이하게 한다고 요약될 수 있다.

어머니의 입력의 영향에 대한 두 번째 연구호름은 1967년 Slobin으로부터 시작된 영어 이외 언어의 습득에 관한 연구(Slobin, 1985, 1992)들이다. 이 연구들은 보편적인 어휘습득 과정에 대한 초기의 이론들과 가정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예를 들어, Gopnik & Choi(1990, 1995)는 한국어의 어휘습득을 연구하여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말미에 놓여 지각적으로 더 현저하고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명사보다 초기 어휘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따라서 동사가 명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습득될 것이라고 ‘언어 특수성(language specificity)’을 주장하였다.

다시 요약하면, 제약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입력과 비교적 무관하게 영아들이 갖는 제약성으로 인해 어휘습득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인데 비해 언어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언어특수성 입장에서는 입력되는 언어의 특성에 따라 초기 어휘발달에 영향을 주는 품사가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입력이 영아의 초기어휘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언한다. 다시 말해, 영아의 어휘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중 품사, 특히 명사와 동사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상의 제약성이론과 언어특수성이론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입력중 동사와 명사만 분류하여 비교하고, 문장전체보다는 말미에 오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입력 전체를 고려하지 못했다. 더 중요하게는 동사와 명사 이외의 품사들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영아들의 표현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여보면, 8개월부터 17개월 영아들의 경우에는 명사 다음으로 ‘빠이빠이’, ‘쉬’ 등의 일상생활 용어, ‘꿀꿀’

등 동물이나 사물의 소리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았다(장유경, 2004). 따라서 어머니의 입력 중 명사와 동사 이외의 품사들도 영아의 어휘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쟁점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전체를 명사, 동사를 포함한 다양한 품사별로 분류하여 각 품사들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이상의 어휘습득 연구들은 주로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발화를 녹음하였다(이승복과 장유경, 1999; Au et al., 1994; Choi, 2000; Kim, McGregor, & Thompson, 2000). 자유놀이상황의 발화 수집은 실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언어적 입력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 사회적인 환경 등 주변 여건에 의해 언어적 입력에서도 차이가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의 경우에는 책읽기 활동을 주로 한 반면, 다른 어머니는 놀이 활동이 주가 되어 이 경우 사용된 언어적 입력의 성격은 확실히 달라졌다(Choi, 2000).

또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휘획득의 초기단계인 평균 16~18개월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그 이후 언어적 입력의 영향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Choi(2000)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10명 이하의 소수 영아와 어머니의 쌍을 관찰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넓은 월령대의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글 없는 그림책 읽기 맥락이라는 비교적 통제된 맥락에서 관찰하였다. 책 읽기를 선택한 이유는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든 언어발달을 위해 가장 권장하는 활동 중 하나가 책읽기이며 이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아이가 혼

자 글을 읽을 때까지 적어도 4~5년간 지속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 없는 그림책읽기는 아직 말을 못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언어적 상호작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에게도 비교적 통제가 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회적인 인지실험의 상황보다 책읽기 상황에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나므로 어머니와 영아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기회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장유경 등, 2003; 이지연 등, 2004; Arnold, Lonigan, Whitehurst, & Epstein, 1994; Martinez, 1985; Ninio & Bruner, 1978; Reese & Cox, 1999; Valdez-Menchaca & Whitehurst, 1992; Wasik & Bond, 2001; Whitehurst, Arnold, Epstein, Angell, Smith, & Fishcel, 1994; Whitehurst, Fischel, Lonigan, Valdez-Menchaca, DeBaryshe & Caulfield, 1988). 예를 들어, Ninio와 Bruner(1978)는 중류층 어머니-아이 한 쌍의 책읽기를 10개월 동안 관찰하여 어머니의 말 중에서 75.6%가 명명이었으며, 어머니는 아이가 명명하려는 시도에 대해 부정확한 명명을 수정해주고 올바른 명명의 81%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지연 등(2004)은 13개월~36개월 한국 영아와 어머니 40쌍의 책읽기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13개월~24개월의 저 월령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피드백과 주의환기가, 25개월~36개월의 고 월령에서는 언어적 피드백과 설명하기가 영아의 어휘발달에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피드백은 영아의 질문에 대답하거나(예: “그건 비행기야”), 영아의 행동이나 표현을 칭찬(예: “정말 잘했어”), 확인(예: “거기 곰이 있다고?”), 모방(예: 영아: “빠방”, 어머니: “빠방”), 교정하는(예: “음빠가 아니라 아 빠지”) 언어적 상호작용을 말한다. 여기서도 영

아의 행동에 대한 칭찬을 제외하고는 사물에 대한 명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언어적 피드백도 명명 중심의 피드백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책읽기 맥락에서 글 없는 그림책을 보며 어머니가 마음대로 읽어주는 동안 나타나는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을 품사별로 분류하여 이들과 영아의 어휘획득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3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아(M=28.9개월, SD=6.9)와 어머니 중에서 책읽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발화와 영아의 어휘체크리스트를 기록한 2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월령 구성은 13-24개월(M=17.7개월, SD=2.8)의 저 월령 6명(남아 3명, 여아 3명)과 25-36개월(M=32.2개월, SD=3.2)의 고 월령 20명(남아 10명, 여아10명)이었다. 연구 대상 영아를 24개월 이하와 25개월 이상으로 분류한 이유는 선행연구(장유경, 1997)에 따라 한국 아동의 어휘 폭발기를 기준으로 전, 후를 나누었다.

### 연구 절차

####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분석

본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빨간 끈’(이경우 편역, 2002)이라는 글 없는 그림책을 어머니에게 제공하고 처음부터

표 1. 책읽기 활동에서 어머니 언어적 입력의 품사 분석 기준

품사구분	조작적 정의 및 예시
명사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 예) <u>신타래</u> 가지고 있네.
대명사	사물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만 가리키기만 하는 품사 예) <u>여기</u> 빨간 장미꽃도 있네.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품사 예) 다리가 <u>열</u> 달린 오징어
동사	사물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로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의 서술어 기능 예) 우와 <u>줄이 이어졌</u> 네.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존재를 표시하는 품사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의 서술어 기능 예) 꽃이 참 <u>예쁘</u> 네.
관형사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 예) <u>어떤</u> 친구들이 있을까?
부사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로 의성어, 의태어, 접속사를 포함 예) 공이 <u>데굴데굴</u> 굴러가요

12쪽까지 영아에게 자유롭게 책을 읽어주도록 하였다. 책읽기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으며 어머니가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두 사람의 발화를 모두 녹음하였다.

후에 녹음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을 학교문법의 9 품사 중 조사, 감탄사를 제외하고 7품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이관규, 2003; 고영근과 남기심, 1995). 명사는 책 제목인 ‘빨간 끈’과 고유명사,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예: 아동의 이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 기준은 표 1에 제시되어있는 바와 같다.

### 영아의 습득어휘 분석

영아의 습득어휘는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이하 MCDI)(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 & Reilly,

1993)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영아들에게 적절하게 일부 수정한 MCDI-K(배소영, 2002) 영유아용과 유아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CDI-K 영유아용은 8-17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된 범주는 소리, 탈 것, 동물, 신체부위, 옷, 장난감류, 음식, 가정용품, 가구 및 방안, 장소 및 공간, 외부사물, 사람, 일상생활, 대신하는 말, 양. 수. 정도, 동사, 형용사, 기능어의 18항목이며, 총 284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MCDI-K 유아용은 18-36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 범주는 영유아용의 기능어 대신에 의문사, 끝맺는 말, 조사, 연결하는 말, 위치, 시간, 돕는 말의 항목이 추가되고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로 바뀌어, 24항목 총 641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MCDI-K는 검사자가 해당 영아의 집을 방문하

여 그 사용법을 어머니에게 설명하였고 어머니가 직접 MCDI-K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이 MCDI-K를 작성하는 데에는 월령에 따라 10-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자료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과 영아의 표현 어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책읽기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과 영아의 MCDI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성별,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및 어휘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및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MCDI 어휘 발달을 예측하는 설명력을 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의 품사분석은 먼저 모든 어휘들에 대한 품사별 어휘수(token)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어휘는 1회로 간주하여 품사별 어휘종류(type)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을 어휘수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가 많이 사용하는 품사는 명사, 동사, 대명사, 부사, 형용사, 관형사, 수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책읽기 상황에서 어머니는 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책읽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Choi, 2000), 그림책 속 사물의 이름을 질문하고 가르쳐주는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표 2.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품사	남 (N=13)		여 (N=13)		계 (N=26)	
	M	SD	M	SD	M	SD
명사	106.1	38.0	99.8	32.5	102.9	34.8
대명사	41.7	20.7	47.9	23.7	44.8	22.0
수사	1.5	3.5	1.5	2.9	1.5	3.1
관형사	7.9	6.0	7.5	5.1	7.7	5.5
부사	27.9	17.3	28.9	15.7	28.4	16.2
동사	87.5	32.2	84.8	34.7	86.2	32.9
형용사	22.5	12.6	25.8	11.6	24.1	12.0

이는 어머니와 영아의 책읽기 상호작용 중 75.6%가 사물의 이름에 대한 명명이었고 영아의 명명도 81%가 강화되었다는 연구 결과(Ninio & Bruner, 1978)에서도 확인된다. 이지연 등(2004)의 한국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은 명명과 묘사를 포함한 설명하기였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에서 영아의 성별, 월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한 결과, 저 월령 영아(M=29.3, SD=15.7)보다 고 월령 영아(M=49.4, SD=21.8)에게 어머니의 대명사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_{24}=2.1, p<.05$ ), 남아, 여아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대명사는 ‘저기’, ‘여기’, ‘어디’, ‘이’, ‘이것’ 등 장소와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월령에 따른 차이는 어머니들이 영아의 언어발달 수준에 적절하게 저 월령대의 영아들에게는 직접 사물의 이름을, 고 월령영아에게는 대명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연구대상 전체의 평균 MCDI 표현어휘수는 397.1개로 나타났으며 남이는 평균

표 3.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월령집단	남(N=13)		여(N=13)		계 (N=26)		
	M	SD	M	SD	M	SD	
표현 어휘수	저월령(N=6)	54.7	58.1	166.3	189.8	110.5	139.7
	고월령(N=20)	482.1	86.6	484.1	97.3	483.1	89.6
계		383.5	203.3	410.8	180.3	397.1	188.8

383.5개, 여아는 410.8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월령은 저 월령 영아가 평균 110.5개, 고 월령 영아가 483.1개로 24개월을 전후하여 MCDI 표현어휘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t_{24}=7.8, p<.001$ ).

영아의 표현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여보면 저 월령의 경우 명사 48.18%, 동사 18.51%, 부사 12.11%, 형용사 6.87%, 대명사 1.92%, 관형사, 수사 등의 기타 품사 12.42%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 월령의 경우는 명사 55.38%, 동사 21.69%, 형용사 8.18%, 부사 5.84%, 대명사 1.07%, 기타 품

사 7.85%로 구성되어 월령과 관계없이, 또 어머니의 입력 중 대명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영아의 어휘에서는 명사, 동사의 비율이 66.7%~77.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사에는 영유아용 MCDI-K 중에서 주로 소리를 나타내는 말(예; ‘꼬끼오’, ‘꽤꽤’)이 포함되어 저 월령대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명사의 비율은 월령이 증가하여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음은 어머니의 품사 사용과 영아의 성, 월령, MCDI 표현어휘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수와 영아의 성별, 월령, MCDI 표현어휘 간의 상관

변인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표현어휘	월령	성별
명사	1.000									
대명사	.609 **	1.000								
수사	.002	.223	1.000							
관형사	.676 ***	.513 *	.396 *	1.000						
부사	.699 ***	.468	-.046	.497 **	1.000					
동사	.861 ***	.589 **	.054	.508 **	.762 ***	1.000				
형용사	.343	.683 ***	.158	.342	.445 *	.490 *	1.000			
표현어휘	-.093	.503 ***	-.202	-.032	.159	.286	.210	1.000		
월령	.330	.518 ***	-.191	-.030	.147	.160	.105	.864 ***	1.000	
성별	.273	.143	.012	-.029	.034	-.043	.141	.074	-.045	1.000

\* p<.05 \*\* p<.01 \*\*\* p<.001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월령, 표현어휘수와 어머니의 대명사 사용 간에는 각각 .50, .52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 월령 영아보다 고 월령 영아에게 어머니의 대명사 사용이 많고, 표현어휘가 많은 영아의 어머니일수록 대명사 사용이 많았다.

어머니의 품사 사용이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동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어머니의 품사 사용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를 약 47.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479$ ,  $F_{7,18}=2.36$ ).

표 5.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예언 변인	R <sup>2</sup>	β
명사		.41
대명사		.75
수사		-.16
관형사	.479	-.47
부사		-.10
동사		-.11
형용사		-.16
		$F_{(7,18)}=2.36^*$

\* p<.01

표 6.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언 변인	R <sup>2</sup>	β
대명사	.253	.50
		$F_{(1,24)}=8.11^{**}$

\*\* p<.01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 중 영아의 표현어휘수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품사 변인을 알아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어머니의 대명사 사용이 영아의 표현어휘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53$ ,  $F_{1,24}=8.11$ ).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품사 사용이 영아의 MCDI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품사사용이 영아의 MCDI 표현어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는 표 7과 같이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 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를 약 57.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73$ ,  $F_{1,11}=14.73$ ).

선행의 연구들(장유경 등, 2003; 이지연 등, 2004)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영향이 영아의 월령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월령에 따라 어머니가 사용한 품사의 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 월령의 영아들은 표 8과 같이 어머니의 명사수가 81.4%( $R^2=.814$ ,  $F_{1,4}=17.80$ ), 관형사수가 약 15.8%( $R^2=.972$ ,  $F_{2,3}=52.34$ )만큼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고 월령의 경우는 어머니의 품사 수가 영아의 표현어휘수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

표 7.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수가 여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언 변인	R <sup>2</sup>	β
대명사	.573	.76
		$F_{(1,11)}=14.73^{**}$

\*\* p<.01



표 8.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수가 저 월령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언 변인	R <sup>2</sup>	β
명사	.814	.70
		F <sub>(1,4)</sub> =17.80 *
관형사	.972	-.50
		F <sub>(2,3)</sub> =52.34 **

\* p<.05 \*\* p<.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 월령 영아의 표현어휘에 어머니의 명사, 관형사 사용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 고 월령 영아는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품사 사용이 어휘발달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책읽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적 입력을 각 품사 당 사용된 어휘의 종류별(type)로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 본 어휘수(token)의 품사분석에서는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각각 세었으나 품사별 어휘종류(type)로 볼 때는 반복되는 어휘들은 모두 한번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품사별로 열

마나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표 9에 따르면 각 품사별 어휘종류를 보았을 때는 동사, 명사, 부사, 형용사의 순으로 어머니가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에서 본 것같이 사용하는 어휘수로 보았을 때는 명사가 가장 많았지만 어휘종류로 볼 때는 동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에서 동사가 강조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Au, Dapretto, & Song, 1994; Gopnik & Choi, 1990). 다른 가능성으로는 그림책 읽기의 상황에서는 그림으로 사물이 제시되므로 사용가능한 명사는 비교적 한정되지만 이에 붙여 사용하는 동사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가 성별, 월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 월령 영아(M=8.5, SD=3.6)보다 고 월령 영아(M=13.00, SD=3.0)에게 더 다양한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_{24}=3.07, p<.01$ ). 앞서 품사별 어휘수의 분석결과와 종합하면 어머니들은 고 월령 영아들에게 더 많은 대명사를 사용할 뿐 아니라 더 다양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어휘종류를

표 9.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품사	남 (N=13)		여 (N=13)		계 (N=26)	
	M	SD	M	SD	M	SD
명사	53.9	14.7	52.6	12.8	53.2	13.5
대명사	11.9	3.8	12.0	3.7	12.0	3.6
수사	0.9	1.1	0.8	1.1	0.9	1.1
관형사	5.9	3.2	5.6	2.7	5.7	2.9
부사	16.6	7.5	15.9	7.1	16.2	7.2
동사	61.1	22.0	58.5	18.3	59.8	19.8
형용사	13.5	8.3	15.1	6.1	14.3	7.2

표 10.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와 영아의 성별, 월령, MCDI 표현어휘 간의 상관

변인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표현어휘	월령	성별
명사	1.000									
대명사	.387	1.000								
수사	-.057	.009	1.000							
관형사	.569 **	.406 *	.203	1.000						
부사	.592 ***	.451 *	.215	.464 *	1.000					
동사	.742 ***	.634 **	.025	.529 **	.777 ***	1.000				
형용사	.199	.579 **	.134	.245	.522 **	.561 **	1.000			
표현어휘	.375	.612 ***	-.357	.060	.158	.335	.294	1.000		
월령	.291	.484	-.322	.018	.126	.230	.189	.864 ***	1.000	
성별	-.046	.011	-.072	-.041	-.055	-.065	.115	.074	-.045	1.000

\* p<.05 \*\* p<.01 \*\*\* p<.001

품사별로 분류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와 영아의 성, 월령, MCDI 표현어휘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표 10과 같이 영아의 표현어휘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의 종류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의 종류가 많을수록 영아의 표현어휘 역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월령과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 종류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동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수는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변량의 절반을 넘는 62.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2=.620$ ,  $F_{7,18}=4.19$ ). 이 중에서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내

표 11.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예인 변인	R <sup>2</sup>	β
명사		.54
대명사		.72
수사		-.27
관형사	.620	-.28
부사		-.06
동사		-.39
형용사		.13
		$F_{(7,18)}=4.19$ **

\*\* p<.01

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의 종류수는 영아의 표현어휘수를 약 37.4%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2=.374$ ,  $F_{1,24}=14.34$ ). 이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의 종류가 영아의 표현어휘수에

표 12.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언 변인	R <sup>2</sup>	β
대명사	.374	.61
F <sub>(1,24)</sub> =14.34 ***		

\*\*\* p<.001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수가 영아의 성별에 따라 MCDI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가 표현어휘 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여아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의 어휘종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수의 변량 중 약 83.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sup>2</sup>=.833, F<sub>(1,11)</sub>=54.73). 따라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의 종류가 여아의 MCDI 표현어휘 발달에 영향력 있는 설명변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가 월령에 따라 영아의 MCDI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저 월령의 영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사용하는

표 13.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가 여아의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예언 변인	R <sup>2</sup>	β
대명사	.833	.91
F <sub>(1,11)</sub> =54.73 ***		

\*\*\* p<.001

명사의 어휘종류와 관형사의 어휘종류는 영아의

표 14. 어머니가 사용하는 품사별 어휘종류가 영아의 월령집단 별 MCDI 표현어휘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집단	예언 변인	R <sup>2</sup>	β
저 월령	명사	.834	.91
	관형사	.965	-.38
F <sub>(1,4)</sub> =20.09 *			
고 월령	대명사	.253	.50
F <sub>(1,18)</sub> =6.09 *			

\* p<.05 \*\* p<.01

MCDI 표현어휘의 변량 중 83.4%(R<sup>2</sup>=.834, F<sub>(1,4)</sub>=20.09)와 13.1%(R<sup>2</sup>=.131, F<sub>(1,4)</sub>=41.34)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두 품사의 어휘종류는 MCDI 표현어휘를 96.5% 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고 월령의 경우는 대명사의 어휘종류가 영아의 MCDI 표현어휘의 변량을 2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sup>2</sup>=.253, F<sub>(1,18)</sub>=6.09).

## 논 의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특성 중 각 품사가 영아의 표현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영아의 대표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맥락 중 하나이며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가장 풍부해지는 책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을 품사별로 분류하고 이들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먼저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명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사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책읽기 상황에

서 어머니들이 명명을 많이 한다는 Ninio & Bruner(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는 초기 어휘습득의 제약성이론의 가정과도 일치한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의 품사별로 영아의 표현어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명사의 수가 많을수록 영아의 표현어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더 많은 어휘를 표현하는 영아일수록 어머니들이 영아의 어휘 수준에 맞춰 명사대신 대명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머니가 사용하는 7 품사들은 영아의 표현어휘의 47.9%를 설명하며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인은 대명사였다. 대명사는 특히 영아의 표현어휘에 대해서는 57.3%를 설명하였다. 영아들을 다시 월령대별로 나누어 각 품사의 설명력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저 월령에서만 명사의 설명력이 81.4%, 관형사는 15.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저 월령대 영아의 사례수가 작아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월령이 증가하면서 명사의 설명력이 줄어들고 대명사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종류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품사별 어휘종류를 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는 저 월령에서는 명사, 관형사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고 월령에서는 대명사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 월령대의 어린 영아들에게는 어머니들이 주로 이름(명사)을 가르쳐주며 어머니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다가 월령이 증가하면서 대명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어머니들의 책읽기 상호작용 방식이 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한 35개월 영아의 어머니의 경우는 대명사를 90회 사용했는데 이중 절반인 44회가 ‘무엇’이라는

대명사로 “이거는 모예요? (이거 뭐예요)”라는 표현에서처럼 질문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도 46회 발화를 하며 어머니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명사를 가장 적게 사용한 18개월 영아의 어머니는 동일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대명사를 6회 사용했는데 그 중 ‘여기’가 3회로 “여기에 떨어지려면~”, “여기가 바닷속이니까~”등으로 주로 책의 그림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8개월 영아의 어머니는 질문을 3차례 정도 밖에 하지 않았으며 아이는 질문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주로 엄마가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머니들이 대명사를 이용하여 질문을 많이 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질문에 발화하여 단어로 대답하는 경험이 영아의 표현어휘 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제약성 이론이나 언어특수성 이론들이 제안하는 바와는 달리 언어적 입력 중 명사,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 즉, 대명사와 관형사도 실제 영아의 표현어휘발달에 큰 설명력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의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첫째, 대명사와 관형사는 명사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고 특히 관형사의 경우에는 명사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명사의 사용과 높은 상관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약성이론에서 제안하는 바처럼 명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이 실제 언어적 입력에서 명사와 동사 이외 다른 품사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명사, 동사 이외에 선행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5 품사를 더 분류하여 봄으로써 선행의 연구들에서 살펴 볼 수 없었던 대명사, 관형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연

구들이 16~18개월의 어휘습득 초기단계의 영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저 월령집단의 영아들의 경우도 13~24개월에 분포 되고, 고 월령 집단은 36개월까지 다양한 월령의 영아들이 포함되어 초기어휘발달의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명사, 동사 이외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대명사, 관형사의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책읽기를 사용함으로써 관형사나 대명사의 사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그 영향이 과장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기존의 연구들은 언어적 입력의 품사를 명사, 동사의 분석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문장에서의 위치도 문장말미에 오는 어휘로 제한했으므로 문장 전체의 어휘들을 품사별로 분류한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상의 대안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보다 다양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언어발달의 단계별로 언어적 입력의 영향을 면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명사, 관형사가 영아의 표현어휘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동사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중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영아들의 표현어휘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않는 결과는 언어 특수성 가설보다는 언어에 보편적인 제약성이론을 지지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언어발달 초기에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특히 명사와 관형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어휘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4개월 이후에는 대명사를 이용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영아들의 어휘발달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 남기심 (199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마곳 블레어 (2002). 빨간 끈. 이경우 편역. 서울: 케이 유니버스(아가월드).
- 이관규 (2003). 개정판 학교문법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이승복, 장유경 (1999). 어휘획득 과정에서의 언어적 입력과 인지적 제약.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49-65.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장유경 (1997). 한국 유아의 초기 어휘획득에서 제약성의 역할(I). 인간발달연구, 4, 76-87.
- 장유경 (1998). 인지발달의 제약성 견해. 이춘재 (편), 발달심리학의 제문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0.
- 장유경 (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8개월~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77-99.
- Anglin, J. (1993). Vocabulary development: A morphological analysi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Child Development*, 58 (10, Serial No. 238).
- Arnold, D. H., Lonigan, C. J., Whitehurst, G. J., & Epstein, J. N. (1994).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Replication and extension to a videotape training forma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 86, 2, 235-243.
- Au, T. K., Dapretto, M., & Song, Y. K. (1994). "Input vs. constraints: Early word acquisition 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567-582.
- Bates, E., Dale, P., & Thal, D. (1995).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theories of language development. In P. Fletcher & B. MacWhinney (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pp. 96-151). Oxford, England: Blackwell.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The use of single-word utterances before syntax*. The Hague: Mouton.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Tinker, E., & Marguluis, C. (1993). The words children learn: Evidence against a noun bias in children's vocabularies. *Cognitive Development*, 8, 431-450.
- Bornstein, M. H. (2003). Individual and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early language acquisition. *이화여자대학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 Carey, S. (1985). *Conceptual change in childhood*. Cambridge, MA: MIT Press.
- Caselli, M. C., Bates, E., Casadio, P., Fenson, J., Fenson, L., Sanderl, L., & Weir, J. (1995). A cross-linguistic study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10, 159-199.
- Caselli, M. C., Casadio, P., & Bates, E. (2001).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Italian. In M. Tomasello & E. Bates (Eds.), *Languag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hoi, S. & Gopnik, A. (1995). Early acquisition of verbs in Korean: A cross-linguistic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497-529.
- Choi, S. (2000). Caregiver input in English and Korean: use of nouns and verbs in book-reading and toy-play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69-96.
- Dromi, E. (1987). *Early lexical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nson, L., Dale, P., Reznick, J. S., Thal, D., Bates, E., Hartung, J., Pethick, S., & Reilly, J. (1993).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 Gentner, D. (1982). Why are nouns learned before verbs: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In S. A. Kuczaj II (Ed.), *Language development: Vol. 2.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Hillsdale, NJ: Erlbaum.
- Gopnik, D., & Choi, S. (1990). Do linguistic differences lead to cognitive differences?: A crosslinguistic study of seman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First Language*, 10, 199-215.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Brookes.
- Hart, B., & Risley, T. (1992).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96-1105.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M.,

-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36-248.
- Keil, F. C. (1981). Constraints on knowledge and cognitive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8*, 197-226.
- Kim, M., McGregor, K. K., & Thomson, C. K. (2000). Early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Korean-speaking children: Language-general and language-specific pattern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225-254.
- Markman, E. (1989). *Categorization in children: Problems of induction*. Cambridge, MA: MIT Press, Bradford Books.
- Markman, E., & Hutchinson, J. E. (1984). Children's sensitivity to constraints on word meaning: Taxonomic vs. thematic relations. *Cognitive Psychology, 16*, 1-27.
- Martinez, R. (1985). Roles adult play in preschoolers' responses to literature. *Language Arts, 63*, 5, 485-490.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Serial No. 149).
- Ninio, A., & Bruner, J. (1978). The achievement and antecedents of labeling. *Journal of Child Language, 5*, 1-15.
- Reese, E., & Cox, A. (1999). Quality of adult book reading affects children's emergent litera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 20-28.
- Slobin, D. (Ed.). (1985).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s. 1 & 2)*. Hillsdale, NJ: Erlbaum.
- Slobin, D. (Ed.). (1992).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3)*. Hillsdale, NJ: Erlbaum.
- Spelke, E. S. (1990). Principles of object perception. *Cognitive science, 14*, 29-56.
- Valdez-Menchaca, M. C., & Whitehurst, G. J. (1992).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A systematic extension to Mexica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 1106-1114.
- Wasik, B. A., & Bond, M. A. (2001). Beyond the pages of a book: interactive book reading and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 classroo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2, 243-250.
- Weizman, Z. O., & Snow, C. E. (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s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65-279.
- Whitehurst, G. J., Arnold, D. S., Epstein, J. N., Angell, A. L., Smith, M., & Fischel, J. E. (1994). A picture book reading intervention in day care and home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 679-689.
- Whitehurst, G. J., Fischel, J. E., Lonigan, C. J., Valdez-Menchaca, M. C., DeBaryshe, B. D., & Caulfield, M. B. (1988). Verbal interaction in families of normal and expressive-language-delay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 690-699.
- Wynn, K. (1992). Addition and subtraction by human infants. *Nature, 358*, 749-750.
- 1 차원고접수 : 2004. 4. 15.  
수정원고접수 : 2004. 9. 6.  
최종게재결정 : 2004. 10. 25.

## The Effects of lexical category of maternal linguistic inputs on early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You-Kyung Chang-Song**

**Hyun Jung Lim**

**Keumjoo Kwak**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investigated which lexical categories of maternal inputs predict most to infants' lexical development. The constraints view predicts that nouns are the most influencing lexical category, whereas the linguistic specificity view predicts verbs are the ones. Twenty six 13- to 36-month-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audiotaped when the mothers read a wordless picture book to their infants. All the words(i.e., the word token) as well as different words(i.e., the word types) in mothers' inputs were categorized into 7 lexical categories of Korean grammar. To assess the infants' vocabulary size, MCDI-K vocabulary checklist was used. The results show that, both in type and token analyses, pronouns were the most influencing word category. Further analyses showed that nouns and determinants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nly for the younger infant group in the both type and token analyses. And for the type analysis, pronoun categor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nly for the older infant group. These results were reinterpreted as favoring the constraints view rather than the linguistic specificity view. Also the results indicated that lexical categories other than nouns and verbs are positive predictors of Korean infants' lexical development.

*Key words* : maternal linguistic inputs, lexical category, noun, verb, pronoun